

한·중·일 가족관계에 따른 전통주거공간 비교연구*

A Comparison of Traditional Living Space Based on Family System in Korea, China and Japa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강사 김도연**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오혜경***

Division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Kim, Do-Yeon

Division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Oh, He-Kyu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dentif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ich share similar social structure,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differences in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according to family relation in the three countries.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selected residences, which are similar to one another in terms of time, class and economy and analyzed them using their floor plans and photograph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Korea, China and Japan, all of which have family-centered social structure, separate their residential space from the external society and particularly women's space is placed inside men's space or in a secluded area.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residential space in Korea is the division of living space between men and women. Space is allocated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order of families. In this way, the position or order of family members is reflected in the use of space.

Characteristically in China based on the large-family system, each family is given a space for independent life. Particularly as the relation among brothers is emphasized, space is allocated equally to all brothers but the status of a space is determined by the order of the residents.

Residential space in Japan is organized to emphasize the absolut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head of the family. As the space is planned focused on the family head's daily life and guest reception, the relation among other family members is ignored. That is, Japanese residence is a social space for the family head's guest reception, Chinese residence is a family-centered space rather than a social space, and Korean residence accommodates both space for family life and social space.

▲주요어(Key Words) : 한중일 전통주거(Korea·China·Japan traditional house), 가족관계(traditional family system), 전통주거공간(traditional living space)

* 본 연구는 2003경희대학교 교비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주저자: 김도연 (E-mail : yeon1217@hotmail.com)

*** 교신저자: 오혜경 (E-mail : ohk@khu.ac.kr)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이 창조해낸 환경 중에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은 가족성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집은 가족을 담고 있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가족이 속해있는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해주는 문화적 공간이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e Rapoport: 1969)도 인간의 행동과 사회제도에 따라 발전되어온 주택형태 및 문화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전통주택은 모든 문화권에서 자연환경과 인류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규범, 가치관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공간이다.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거는 그 형태와 구성이 물리적 현상이나 우연한 요건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민간 신앙이나, 가족관계, 사회구조, 인간관계 및 그 필요성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윤장섭, 1979)이며, 인간생활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 소멸, 창조되는 것이다.

모든 사회는 문화에 따른 가족집단의 공간적 관행을 갖는다. 각 가족성원들의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그 집의 공간적 영역에서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는 공간활용 뿐만 아니라, 공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른 문제도 그 사회의 문화적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내 삶의 질서는 가족내에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생활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박부진, 1998).

본 논문도 가족관계 특성에 따라 전통주거공간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사례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주거공간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삼국이라 불리는 韓國·中國·日本은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유교문화, 한자문화라는 문화적 공통성과 가족과 가문에 대한 결합의식이 매우 강한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륙, 반도, 섬이라는 지형적, 기후적 차이로 서로 다른 이질성 또한 공존하고 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동아시아 삼국의 비교연구¹⁾는 한국의 정체성을 논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심리학이나 인류학분야에서는 공간점유를 일종의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공간점유의 관행을 통해 사회성원의 인간관계

와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²⁾ 인간관계와 문화적 특성의 비교연구³⁾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건축학이나 주거학분야에서 한·중·일 전통건축에 대한 비교연구⁴⁾도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주거환경의 유사성과 차별성의 근거가 되는 비교연구⁵⁾는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관계가 주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진 동아시아 삼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비슷한 사회구조속에서도 가족관계 차이에 따라 이용공간과 공간구성 특성 및 공간사용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일 가족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거공간을 분석하는데 있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중·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가족제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삼국의 가족관계의 차이에 따라 전통적 주거공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가족관계와 공간구성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한·중·일의 가족관계 및 가족구조와 주거공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의 문화적 특성 및 가족구조, 가족관계에 대한 문헌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인류학, 주거학, 가족학, 사회학, 등 관련학문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 삼국의 전통주거공간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계층적으로 유사한 주택

1) 한국전통주거공간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타 민족의 자료와 비교 하는 비교연구를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문화비교는 이질적인 동서양의 문화비교가 아닌 Merton이 말하는 中範圍理論, 또는 Beattie가 말하는 狹範圍理論, 과 같이 비교적 동질문화내의 비교연구를 선택하였다.

박지연(2003)은 비교문화는 영어로 cross-cultural, crosscultural로 표기하고 비교문화, 교차문화, 이문화간, 문화간, 다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1990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부설비교문화연구소는 ‘비교문화’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였다.

2) 특정장소와 공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공간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박성용, 1995, 통혼권의 공간동학적의미, 한국문화인류학 28권 / 권숙인, 1996, 현대 일본 사회와 ‘전통’의 공간 :오쿠아이즈의 한 민속의례를 중심으로, 문화인류학 제 29권 1호)와 가족의 위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공간을 분석한 연구(박부진, 가족의 위계구조와 공간이용, 가족과 문화 10권 2호/ 박부진, 거주공간의 이용관행과 가족관계, 집문당)가 있다.

3) 김홍식은 “한중일 문화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에서 각국의 문화적차이점을 사회문화론적(비교사회학적 시각)차원에서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체제와 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4) 전통건축에 관한 비교연구로는 삼국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권영걸, 한중일 전통공간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와 민가비교연구(김홍식, 한·중·일 민가 계획론에 대한 비교 연구 / 윤장섭, 한국과 일본의 민가건축 비교연구)와 공간이용특성에 따른 비교연구(이원식, 생활행위별 한·중·일 전통주거의 공간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문화연구)가 있다.

5) 전통주거의 차별성에 근거가 되는 비교연구로는 이원식과 김미나의 연구가 있다. 이원식(가족제도 관점에서 본 한중일 전통주거공간의 비교연구)은 전통가족제도를 가연계승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타 가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김미나(한·중·일의 경계의식에 따른 주거공간의 경계구조)의 연구에서는 주거형태와 공간구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을 선정하여 평면과 사진을 통해 분석 하였다.

현대에는 가족유형이나 가족이념들이 가장의 가부장제에서 개인주의 적이고 평등주의 적으로 민족적, 국가적으로 유사하게 바뀌어 가고 있어, 한·중·일 가족관계의 차이에 의해 주거공간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대적 범위를 자국의 민족적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근대화되기 이전의 근세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시대적 범위는 17세기 초에서 근대화되기 이전의 19세기 전으로 한정하여, 한국은 조선시대, 중국은 명·청시대, 일본은 에도시대로 삼았다.

시대 나라	16 C	17 C	18 C	19 C
중국	明		清	
한국	조선 시대			
일본	幕府時代 무로마치		江戶(江戸)	

<그림 1> 시대적 배경

한·중·일 삼국은 전통적으로 土農工商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는 양반(6)이라 불리우고, 중국은 관료주의적 사교아래 신사(紳士)7), 사대부등으로 부르고, 일본은 무사(武士)8)라 칭한다. 이들 국가별 士계층은 윤리나 규범적인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계층이다. 한국과 중국은 문관이 상류계층의 주류를 이룬 것과는 달리 일본은 무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이 거주하였던 반가, 사합원, 무가(9)를 비교분석주택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양반이 사는 주택을 반가라 부르고, 일본의 무사들의 주택을 무

- 6) 양반이란 문반과 무반이라는 반역적 의미보다는 조선왕조를 통치해온 상급지배신분층의 통칭이다. 양반이란 용어 외 사대부, 사족, 선비등과 같은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다. 양반이나 사대부는 신분계층인데 반하여 선비는 인격개념이라 할 수 있다.
- 7) 중국은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체도를 위한 과거제도를 통하여 신진관료계층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공인된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과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생활을 주도하고 관리를 배출하는 계층이었다.
- 8) 일본은 봉건사회였다, 무사가 등장한 것은 헤이안 시대의 일이다. 장원영주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 것이 시초이다. 막부는 소수의 무사가 많은 농민과 초오민(町人:평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농공상(士農工商:武士, 農民, 職人, 商人)이라고 하는 신분제도를 만들고, 상인계급의 아래에는 다시 에타(非人)이라는 천민계급을 두어 차별했다. 무사는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의 역할을 받으면서 지배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다른 계급보다 월등한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습가능하고 묘오지(姓)을 칭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최상위의 무사는 무예나 학문을 닦으며, 허리에는 두 자루의 칼을 차고, 농민과 평민(町人)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배어 죽일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무사들의 면책 특권). <http://www.history.co.kr/Academy>
- 9) 본 연구에서는 다이묘 및 상급무사의 주택은 제외하고 중하급 무사의 주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주택은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중에서 평면을 확보한 주택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가라 부른다. 그러나 중국은 계층별 주택의 분류보다는 주택유형별로 분류하여 부르며, 규모 및 구조와 재료의 사용에서 계층성을 반영하여 중국 한족의 대표 주거유형인 사합원(10)을 분석공간으로 삼았다. 사합원은 반가나 무가보다 일찍 나타난 유형이지만 명, 청시대 관료들이 대부분 살던 주택유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합원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도서관 서베이와 관련학문분야의 문헌, 인터넷 탐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수량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통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I. 한·중·일의 사회구조(11)와 가족구조

각 사회는 그들의 사회구조에 따라 주거영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는 그들 사회의 정체감에 대한 철학과 결부되어 그들의 세계를 공간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Duncan(1982)은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라 주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밝히고 특히 성에 따른 주거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구조적 특성을 그 사회가 집단과 개인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집단주의 사회구조(12)와 개인주의 사회(13)구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단권의 분류에 의하면

- 10) 사합원의 규모는 신분보다는 주인의 경제력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서민의 주거이기도 하며, 상인의 주거, 사대부의 주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사합원을 선택한 이유는 비록 경제력에 따라 주택의 규모는 결정되어 지나 한나라 때부터 중국 한족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면서 명·청시대의 관료들이 주로 살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이다.
- 11) 구성원의 주요 생활요구가 그 속에서 만족되는 자족적 생활 범위, 즉 포괄적인 전체사회의 구조로 때로는 어떤 특정 집단(예를 들면 가족)의 내부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조란 구성요소 사이에서 관찰되는 상호 연관된 규칙적 양식을 가리키므로 사회구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는 여러 요소의 구조화된 양식을 가리킨다. 이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상호연관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사회구조의 개념은 달라진다.(박부진, 1997)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의미한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사회구조유형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레드필드(Redfield)는 시골대 도시, 톤니스(Tonnies)는 공동사회 대 이익사회, 뒤르켄(Durkheim)은 기계적 결속사회 대 유기적 결속사회 등으로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다.(이경희, 1993)
- 12) 집단주의 사회구조는 가장 중요한 조직원리가 친척관계이며 이러한 집단 조직의 혈통에 의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사회적 공간적 이동이 적어 개인은 비교적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생활한다. 또한 남녀를 차별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기에 남자와 여자의 활동 공간 및 주거공간이 엄격하게 분리한다. 즉 남성은 외부세계에 속해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영역의 중심인 남성공간에서, 그리고 여성은 출산과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여성공간에서 거주한다.
- 13) 개인주의 사회구조는 집단조직이 친족에 국한되지 않고 외

한·중·일의 전통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家'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사회구조이며 집단주의 사회에 나타내는 공간점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Heu(1971)은 한·중·일 삼국은 부자관계선이 지배적인 사회로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세대를 거쳐 연결되는 연속성과 가족 내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포용성, 그리고 역할구조로서의 권위성을 가진 사회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中根千枝(1970)은 가족의 구조적 특색은 소가족, 대가족, 직계가족으로 분류하고 소가족은 독립성이 강하고, 대가족은 형제의 유대관계가 강조되고, 직계가족은 부자의 계승선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가족과 직계가족을 비교하여, 대가족은 확대를 지향하고 형제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부혈족의 원리를 갖는다 하였다 이에 비해 직계가족은 지속을 지향하고 주거, 토지, 재산을 단위의 축으로 하여 가장 계승의 존속을 원리로 하는 가족집단이라 하였다.

이처럼 한·중·일 가족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구조방식에서는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구별되는 '가족위주'의 동양적 생활관습 때문이다. 이처럼 한자를 사용한 삼국은 가족을 가르키는 말로 '家'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은 공통적으로 조상에서 자손으로 계승되는 초시간적인 제도로 중요시 하였고 의견상으로도 가부장제가족과 부계가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한국의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한국문화의 사회제도적인 특징은 철저한 가문중상주의와 가족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족주의는 가문의 조상을 숭상하는 유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유가사상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문중상주의적 가족주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핵심적 가치관이며 조상숭배와 가문중상주의는 거의 종교와 같다(권이구, 1984; 김광억, 1984). 가문은 친부모-자식관계를 핵으로 하여 문중 또는 종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조선중기이후 성리학적 유교문화의 정착으로 사대부들은 농촌을 중심으로 씨족마을¹⁴⁾을 형성해 가면서 이루어 졌다. 친족체계의 변화는 씨족마

부집단에 대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가치체계가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와 독창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집단주의 사회에 비해 성차별이 적으며,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점유가 사적영역에서 남성의 점유가 증가하며, 개인주택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거주공간의 일부가 점차 공적인 기능을 갖는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사회에 대한 가족집단의 폐쇄성이 증가하고 가족들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다.

- 14) 부계친을 중심으로 공동의 조상을 가진 일단의 씨족이 한 마을에 대를 이어 거주하면서 혈연(血緣)과 지연(地緣)을 겸하는 친족공동체(親族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p183)

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고 선조의 제사를 모심으로써 부계위주의 가족질서를 제도화 하고, 재산의 상속도 적장자 우대 상속제(嫡長子優待相續制)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를 잇는 큰집과 분가한 작은집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2. 중국의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중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개인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가족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중국의 家(家)는 대가족을 이상시하고 있는데, 이는 혈연계승에 역점을 둔 부계연합가족으로 오직 혈연자만이 가족집단의 성원이 되어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가계를 계승할 친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게 되는데 동종의 양자가 없을 경우 이성(異姓)의 아들을 맞아 들일 수 있다. 중국의 가족은 '개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전략적 중심'이었으며,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적 단위'인 동시에 구성원의 생전과 사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종교적 단위'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하나의 '가문(家門)'은 그들의 일족(一族)을 될 수 있는 한 같은 공간에 두려 노력하는 대가족제도를 이상으로 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족 내에서의 도덕과 규율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사대부 가족내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범과 가훈, 가규 등이 성문화 되어 있다. 전통적인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장유유서, 형제화목, 남녀유별의 덕목이 가족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규범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규범은 가장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족공동의 실천적 규범이 되어 왔고, 사회적 가치의 규범이 되었다.

중국은 상속제도는 균분주의를 원칙으로, 형제간의 연령, 장유, 적서의 구별 없이 재산을 철저하게 균분한다. 상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경제권이며 제사권이나 가장권은 부차적이었다. 부친이 사망하여도 형제들이 전 가족을 부양할 만큼 가산이 충분하면 분할하기보다는 같이 동거하기를 원하며, 가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한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균분주의 상속으로 큰집, 작은집의 개념이 없고 단지 가산의 분할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중국의 분가제도를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핵분열로 비유하기도 한다(이광규, 1993).

3. 일본의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일본은 여러개의 섬과 협곡으로 구성된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회를 총합하거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지방분리적이고 분권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조직은 종교와 같이 강력한 사회결속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사회조직속에서 일본사회의 인간관계는 철저한 상하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항상 사회조직과 집단의 상하질서 내의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의식은

가정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잘 발달되어 언어에 있어서도 성별, 세대별, 연령별, 상하질서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가족제도는 같은 형제의 경우 결코 두세대 이상의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소가족 유형이 지배적이다(김홍석, 1997). 이에(家)는 혈연의 계승이라는 원리를 넘어 이름의 계승으로 발전한 것으로 가명의 계승에 역점을 둔 직계가족이다. '이에'는 비친족원을 포함한 거주자들의 생활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집단의 계승, 집단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친혈족이라 하더라도 분가나 입양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에노모노(家の者=집의 구성원)'는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같은 주거공간인의 공유자를 일컫는다. 즉 이에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봉공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에 대하여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또한 '이에'의 계승은 '이에'자체에 속해있는 가산의 운영과 관리 및 가업의 계승을 포함하는 가족능력이 일차적으로 중요시되어 가장에 의해 대표된다.

일본은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전부 상속하는 후계자단독상속제도이다. 지방에 따라 초생상속이 되어 장남보다 먼저 출생한 장녀의 남편이 상속을 받기도 하지만, 남이라도 가장이 후계자로 정하면 성과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즉 일본은 적서의 구별이나 장유의 구별보다 중요한 것이 후계자이다. 이런 후계자에게 조상의 제사 및 가산상속 모두 이루어졌다.

또한 혈연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과 후계자 간에는 주인과 선택된 고용인 같은 주종관계가 성립되고 충(忠)의 원리인 의리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가의 분가의 관계는 지주소작관계로 상하주종관계이다. 분가는 본가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분배받을 뿐 아니라 생산도구와 생활용구까지 받고 관혼상제 등 대사에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본가에 생활의존도가 높으며 동족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한·중·일 가족구조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III. 전통주거공간의 공간구성

1. 한국 반가의 공간구성

조선시대 상류계층인 양반이 살던 반가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사당 등으로 몇 개의 동(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채와 채를 둘러싼 담장과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채의 건물과 많은 공간으로 분리되는 것은 대가족을 수용하기 위함과 유교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내외의 위계, 장유의 위계, 학문과 접객 등 성리학적 규범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과 공간으로 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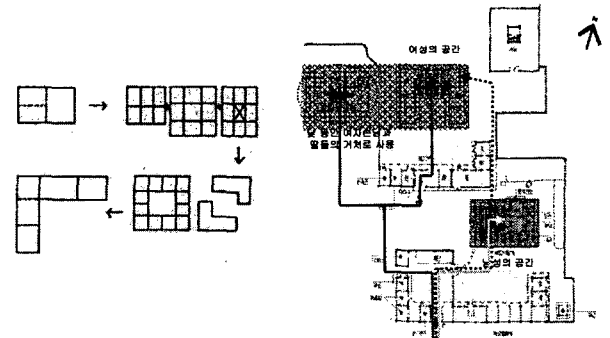
각 채는 ㄱ, ㄷ, ㅁ, ㄴ 자형이 일반적이고 각채와 채가 결합하여 ㅁ, 日, 月, 用, 品자 등으로 일체화 되어 있다. 각 채와 채를 배치할 경우에는 유교적 원리에 의해 배치된다. 전면에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과시적인 것들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가족적이고 사적인, 남에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을 배치한다. 따라서 전면에 행랑채를 배치하고 그 뒤에 주인채를 배치하고, 사당은 집의 가장 후면에 조산 바로 밑에 배치한다.

주인채는 안채와 사랑채로 역할에 따라 영역구분이 명확하다. 사랑채는 안채보다 앞에 배치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남성공간으로 집안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안채는 가정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여성의 공간으로 사회적 관습에 따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가장안쪽에 위치하고, 남성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행랑채는 하인들의 공간인 동시에 남성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주택의 가장 후면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신성한 사당공간이 일상의 속(俗)된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배치된다. 이러한 개념은 바닥레벨에도 나타나, 행랑채에서 사랑채, 안채, 사당순으로 바닥레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1> 한·중·일 삼국의 가족구조비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동족	조상숭배를 위주로 한 혈연집단	조상숭배를 위주로 한 혈연집단	농업생산을 위주로 한 비혈연 지연집단
家	집(chip)	찌아(chia)	이에(ie)
가족문화	가문상상주의와 가족주의	가족중심적 개인주의	양적 가계주의 (가계중심)
가족유형	혈연직직계가족	확대가족	귀속직직계가족
가장권계승 (부자관계)	소나무형 (연속성)	세포분열형 (포용성)	대나무형 (권위성)
상속제도	장자유대불균등	균분상속	후계자단독상속
문화주체	제사권중심의 명분주의	재산권중심의 실리주의	가장권중심의 명예주의
공/사 구분	공사 미분화 (가족>공적)	사적관계중시 (가족>공적)	공사관계 철저 (공적>가족)

출처: 한중일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비교(부산발전연구원, 1997) p.41의 표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



채와 채의 결합방식 반가의 배치 (정음김동수가옥)

<그림 2> 반가의 공간구성 및 배치원리

한국도 중국처럼 좌를 右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택 내에서는 좌우의 공간구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음양론적

사고로 인하여 남쪽과 동쪽은 남성의 공간으로 북쪽과 서쪽은 여성의 공간으로 배치하는 규범이 만들어 졌다.

이상과 같이 한국 반가의 공간구성은 下-上, 男-女, 俗-聖, 접객-생활공간으로 명확히 구별되며 좌우개념은 표현되고 있지 않았다.

2. 중국 사합원의 공간구성

사합원은 중국한족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다양한 규모와 격식으로 지어졌으며, 거주자의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중화사상으로 인하여 중심선과 대칭성(중축대칭)이 강조되고, 넓은 평원에 여러겹으로 둘러 쌓여 진입을 길게 하는 배치법을 사용하였다. 즉 사합원은 중정을 중심으로 여러채의 건물이 그 주변을 둘러싸는 내향적 공간구성이 특징이며, 축을 따라 전면에서부터 후면을 향해 위계적 질서체계가 설정되고, 좌우로 위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규범은 주택내 각 건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주택의 공간사용에 있어서도 주 건물의 중앙에 있는 공간이 측면에 있는 공간보다 항상 우위에 있고, 중정을 향해 좌측에 있는 공간이 우측에 있는 공간에 대하여 항상 우위에 있다. 중앙에 있는 건물은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의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 사용한다. 즉 공적공간인 당에서는 접객과 집회, 의례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적영역보다 우위에 있다. 조당의 경우에도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위치와 방향 또한 조상의 위계에 따라 정해졌다. 또한 남자의 공간이 중앙 전면에 위치하고, 여성의 공간은 후면에 위치하거나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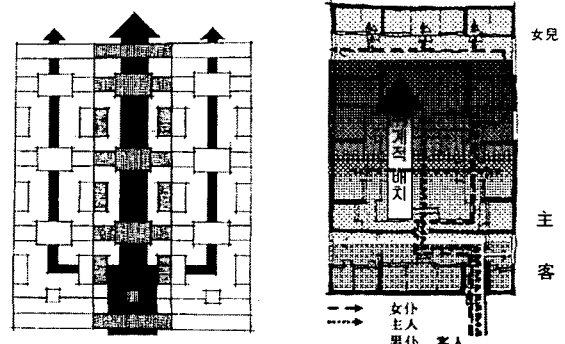
이러한 위계에 따라 정방은 주택내 최연장자의 거처로 사용되어 후면 중앙에 위치하고, 장유의 질서에 따라 좌, 우의 상방에 기거하도록 하였으며, 기혼자녀는 좌측에 미혼자녀는 우측에 기거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남녀에도 나타나 남자아이의 방은 좌측에 여자아이는 우측에 위치한다.

중정의 사용에도 위계가 있다. 첫 번째 중정은 보통 하인들에게 속한 공간이었고, 두 번째 중정은 위계가 낮은 가족이나 방문객을 위한 곳이며, 정방 전면에 위치한 중정은 가장과 장노년층을 위한 곳이다. 주택의 가장 후면의 후원은 딸이나 소실을 위한 곳이다. 이렇듯 계층적으로 차별화한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 사용방식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바닥의 레벨에서도 나타나 중요건물인 정방이 가장 크고 높으며, 여타의 건물은 각각의 위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높이를 달리하고, 크기의 위계는 건물의 폭을 결정하는 칸의 크기도 반영되어, 볼륨의 크기와 지붕의 구성에 따라 정면과 측면의 위계가 표현되었다.

주택내 공간의 질서체계는 건물의 재료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가치를 갖는 재료는 대문이나 정방 등 건물의 중심부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갖는 재료는 측면의 건물군과 부엌이나 창고 등 부수적인 공간에 사용하였고, 건물의 장식에도 적용

되었는데, 이러한 장식에서도 좌우의 법칙과 문장의 선후에 따라 적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사합원의 공간구성특징은 신분에 따른 상하구별이 엄격했으며, 손님과 가족 구분, 장유의 서열에 따라 거주공간의 위치가 결정되고 있어, 男女有別, 長幼有序, 尊貴의 질서 원리가 엄격히 지켜 배치하고 있다.



사합원의 공간분화원리 사합원의 배치원리
출처: 王其明 外 1人(1996), 北京四合院, 中國建築工業出版社

<그림 3> 사합원의 공간구성 및 배치원리

3. 일본 무가의 공간구성

한국과 중국의 주택구조가 동과 동이 결합된 주택구조라면 일본의 주택구조는 여러 공간이 칸 분화의 반복으로 인하여 동 하나에 집중되어 요철이 심한 하나의 큰 주동을 구성하는 일체형¹⁵⁾ 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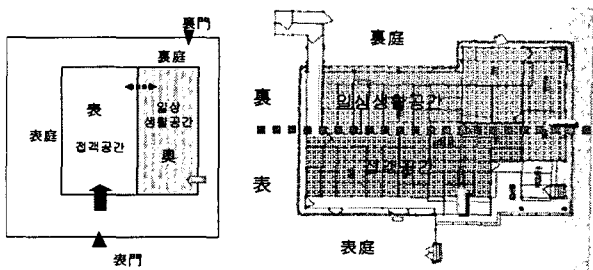
마루공간은 동일한 단위공간으로 반복되거나 덧붙여 퇴와 같은 공간이 부가되어 구성하거나. 이런 동들이 짧은 랑으로 공간을 연결시켜 부속채를 별동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주공간에서 부수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축의 진행 없이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었고, 공간속 배치가 고정되지 않은 융통성 있다.

공간의 용도와 사용자에 따라 접객공간과 가족 생활공간, 하인생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접객공간과 가족생활공간은 하인생활공간으로 연결되어진다. 각 생활공간은 기본적으로 토칸과 마루공간, 다다미로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바닥의 처리특성에 따라 각 공간에 위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주택은 한 건물안에 모든 실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 사이에 배치질서가 있다. 한국과 중국처럼 전후의 질서원리가 표리(表裏)¹⁶⁾의 질서원리로 나타난다. 표는 주택 정면의

- 15) 일본 고대 주택이었던 침전조는 남향에 정전인 침전이 있고, 동, 서, 북에 대옥이 위치하여 좌우 대칭적 배치원리를 따랐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좌우 대옥은 생략되고, 중문복도는 짧아진 간단한 형태로 변하였다. 침전조에서 나타나는 분동형 배치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일체형 배치로 변하게 된 것이다.
- 16) 일본인 앞(오모테=表)과 뒤(우라=裏)에 의해 뚜렷한 구별의

입구의 방향을 말하며, 리는 그 반대개념을 말한다. 표의 공간에는 접객, 제사등의 공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리의 공간에는 사적 생활이 이루어진다. 표의 공간은 살기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곳으로 경제적 부유함과 관계없이 신분에 맞게 정확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고, 집의 안쪽 부분인 리의 공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곳으로 간주하여 허술하게 처리하였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에게 맡겨주었다. 즉 表에는 공적이면서 사회적인 남성의 공간이, 裏에는 가정적이면서 사적인 여성의 공간으로 구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리 질서의 중요성은 용어에서도 나타나, 마당과 문을 表庭-裏庭, 表門-裏門으로 나누어 부른다.



무가의 공간영역과 배치원리

무가(目加田家住宅)의 배치 출처: 『日本建築史』, 昭和堂, p.122

<그림 4> 무가의 공간구성원리 및 배치원리

또한 일본은 한국과 중국처럼 좌우의 구별개념 보다는東西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다. 동쪽에는 아침에 시작되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폐쇄적인 여성적인 공간을 배치하고, 서쪽은 저녁때일의 끝을 마치는 개방적인 남성의 공간으로 비밀상적이며, 의례적인 공간들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통주거의 배치는 남성과 여성, 사회적-가정적, 공적-사적 공간의 표리로 나누어 배치하고, 동서로는 일상과 비밀상공간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IV. 가족관계와 공간구성

가족은 성과 세대에 따라 위계질서 성립과 분업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한·중·일 세나라는 특히 세대, 연령, 성에 따라 위계질서가 엄격하다(한남제, 1997). 이러한 위계질서에 따라서 주거공간사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가족제도를 부부관계, 부자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나누었다.

1. 한국의 가족관계에 따른 공간구성

한국과 같이 혈연적 수직구조에서의 부부관계는 부자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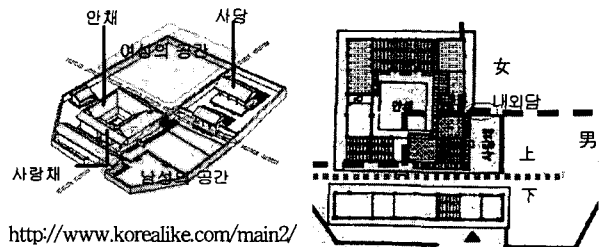
식을 가지고 있다. 표란 바깥으로 내는 것, 리란 바깥으로 내지 않고 안으로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영향을 받되 부인은 그 나름대로 지위와 권위가 부여된다. 한국에서는 부인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자녀들의 母로서 남편인 父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즉 부인은 독자적인 영역과 영향력을 보존하면서 남편과 주종관계를 갖는 독립적 종속관계로 부인은 가장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가장권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부자관계는 절대적인 상하관계이고, 아들은 가장의 후계자로서 가부장에 종속된다. 효사상이 근원이고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권을 상속 받게 된다. 따라서 장자는 후계자로서 외부손님을 접대하고 다른 집안과의 관계를 교육시키고, 제사를 통하여 도의교육과 아울러 의례와, 집의 내력, 장차 집을 이어나가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도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음에 집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자기가 존재할수 있기 때문에 부자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한국의 형제관계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의 후계자가 될 장자는 차·삼남보다 위함을 받고 부모의 관심과 양육, 교육이 달랐다. 이는 가족을 계승하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며, 큰아들은 제사를 모시게 될 사람으로 여겨 어려서부터 다른 아들과 구별하여 특별한 대우와 함께 교육을 받았으며 차남이하의 아들은 분가하여 생활하였다. 이처럼 장자와 차남간에는 언어, 행동 등에 차이를 두어 연장자에 복종하는 상하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인하여 형제간의 상하관계는 약화되고 동세대인으로서 협력관계가 된다.

부계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혼인한 여자의 지위인데,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관계는 아들이 결혼함으로써 고부관계로 변하게 된다. 며느리는 혈연에 의해 맺어진 가족관계가 아니며, 시가에 일방적인 복종이 강요되기 때문에 며느리와 다른 가족간의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고부관계는 살림권을 가지고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부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http://www.korealike.com/main2/main/main.asp>

<그림 5> 반가의 남녀 공간분화(송동만가옥: 서백당)

한국은 가장과 주부, 남자와 여자가 분담하는 역할이 분명하여 상대방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여 외부와 접촉하는 일을 맡고 주부는 가사생활을 담당한다. 종교영역에 있어서도 남자는 유교적 형식을 따른 조상숭배의례를 전담하여 가족의 번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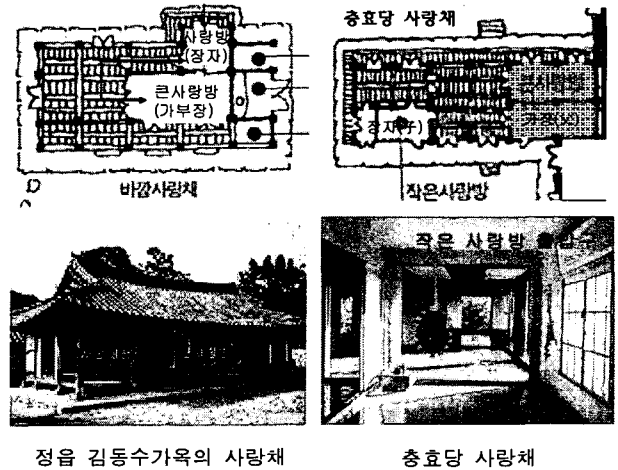
빌고, 여자는 다신교적인 가신봉양(7)을 전담하여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이러한 남녀의 역할구조와 성의식에 따라 반가는 남녀의 생활영역 전체가 분리되었다. 성별 공간의 분화는 사랑채와 안채로 영역구분이 이루어져 각각 독립된 건물과 외부공간을 가지고 담장과 문으로 경계를 이루었으며, 영역이 인접해 있을 경우 시각적 차단을 위해 내외담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채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써 주부가 거처하는 곳으로 주거의 중심이며,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여러겹의 중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곳에 위치하였다. 이는 남자는 밖에 기거하고 여자는 안에 기거한다(男子居外 女子居內)는 성별분리원리에 따른 것이며, 외부와의 거리뿐 아니라 거처야하는 과정을 좀더 복잡하게 하여 그 연결성을 낮추고 외부와의 접촉빈도를 줄이고자하는 계획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안채는 주택내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직계존속 이외에 남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고(8), 상류층부인들은 거주공간인 안채 중문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채공간의 대부분에서 소임으로 가사를 하도록 사랑채와 안채가 구성되게 하였고 안채는 가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사랑채는 안채를 보호하고 노비를 감시하고 외부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행랑채를 바라보며 안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사랑채는 가부장의 상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며 가계계승을 위한 수련장이었다. 주인의 일상거처는 물론 방문객을 접대하는 장소와 문객들의 대화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중 사랑방은 사랑채의 중심공간으로 가문의 학문 및 수양을 위한 서재공간 겸 수면을 위한 침실의 기능까지 지녔다. 그래서 가격을 나타내주는 섬세한 장식과 규모로, 가문의 위엄이나 가문의 신조를 나타내주는 편액과 주련 등으로 꾸몄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공간인 사랑채는 상속에 따라 방의 위계가 정해져 가부장과 장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큰사랑방의 경우 가문의 전용공간으로 작은 사랑방의 경우 장자의 방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랑채의 누마루는 가문의 전용공간이자 위엄과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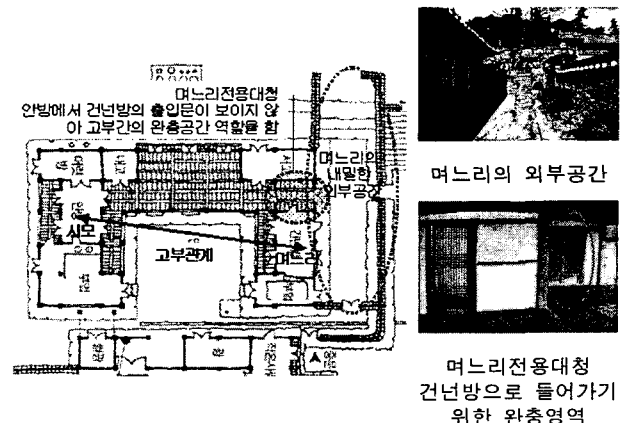
공간이었다. 유교윤리인 부자유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채를 쓰면서도 방의 격을 달리함으로써 장자는 가부장으로서의 수업기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랑채와 독립된 별도의 작은 사랑채를 두어 장자가 그 나름의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자의 방이 사랑윗방이거나 약간 방향을 달리하여 같은 채에 두고 있다. 장자가 사랑채의 큰 사랑방을 차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계계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6> 정읍 김동수가옥의 사랑채나 충효당의 사랑채의 경우에도 큰사랑방의 경우는 가부장의 주거공간으로 작은 사랑방은 장자의 거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큰사랑방은 2간입에 비해 작은사랑방은 단간이며, 큰사랑방은 햇빛이 잘드는 곳에 위치하고 그 옆에 대청을 끼고 있어 어느 계절이나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이는 같은 채에서 기거하지만 부자관계에 따른 위계적질서와 장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비록 위계적질서에 의해 방의 격은 다르나 장자의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루를 설치하였다.



<그림 6> 부자관계에 따른 사랑채 도면 및 사진출처: 「한옥의 향기」, 대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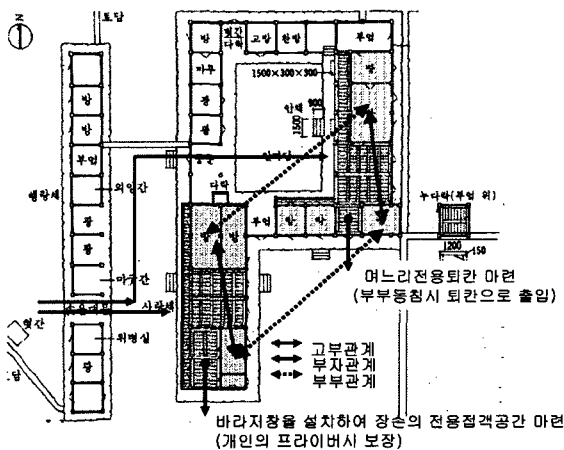
- 17) 집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는 신이 산다고 믿었다. 대청의 성주신을 우두머리로 하여 안방의 삼신, 부엌의 조왕신, 외양간의 마대지신. 도장(고방)의 도장지신. 변소의 측신. 대문의 구들지신. 마당 노작지신. 장독대의 장독지신. 우물의 용왕신등이 있다고 믿어 가족의 번영과 평화를 빌었다. 성주신을 받드는 여러 상징물로는 백지에 돈과 실을 꿰어 묶는 형태나 여러겹으로 접은 한지. 쌀이 담긴 단지. 성주곳에 사용된 무당의 옷, 베나 형질 또는 종이 오라기 등이 가장 보편적이다. (강영환, 집의 사회화, 웅진출판, 1995)
- 18) 안채의 개방성이 높은 안동권 반가에서는 남자가족의 안채 출입이 조심스럽고, 폐쇄도가 높은 영동권 반가에서는 안채 내 남성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권의 자유로운 배치에서는 폐쇄적인 벽체(내외담)를 사용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경우 안채에 근접한 별당에서 접대하였다.



<그림 7>고부관계에 따른 안채의 공간표현(윤증고택) 도면출처: 「한옥의 향기」, 대원사

한국의 여성은 안채를 중심으로 거주한다. 따라서 고부관계도 이 안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채는 안방, 안대청, 건넌방, 부엌등으로 구성되는데, 부엌은 안방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안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한다.

안방은 안채의 최고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안방에는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어 있고, 중요한 가신이 보관되어 있으며,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부모가 병이 들어 위중해지면 안방으로 옮겨 그곳에서 세상을 마치게 하였고,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안방이나 안대청에서 제사를 지냈다. 즉 주부가 안방을 점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권력인 주부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방은 권력을 가진 시어머나가 기거하고, 건넌방은 며느리가 기거한다. 가계계승방법¹⁹⁾에 따라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안방의 규모와 장식은 며느리가 거처하는 건넌방과는 차이를 보인다. 안방에는 다락과 벽장, 찬방까지 딸리는 경우가 있으며, 안방에 골방을 붙여 옷이나 이부자리를 두고 필요에 따라 안잠자리를 두고 부리는 경우도 있다. 위계적 질서에 의해 공간사용이 결정되지만 며느리도 언젠가는 안방을 차지할 날이 있으리라 여겨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림 8> 가족관계에 따른 반가의 사례(충효당)
 도면출처: 문화예술정보시스템(www.culture-arts.go.kr)

안대청은 방으로 출입하는 전실의 역할을 하며 집안에 큰일이 있을때 중심공간이 되며, 지역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안주인의 접객공간으로 가장 근엄하고 넓은 공간이다. 이 안대청의 다른 역할은 안방과 건넌방사이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의성김씨 종택의 안대청에서는 지위나 집안의 위계에 영

19) 부모가 살림을 넘겨주는 시기는 지방에 따라 개별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북, 경남지방의 은거형은 부모가 사랑방과 안방을 내어주고 중요하지 않은 방이나 별채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전라도와 충청도지역의 종신형은 부모 사후에나 사랑방과 안방을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종신형의 경우 안방창치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게 하기위해 안장과 건넌방의 크기나 장식이 비슷하지만 은거형의 경우는 건넌방의 크기나 장식이 허술하다.

역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단을 만들어 시모의 공간과 며느리의 공간을 구분해주는 경우 있다. 이는 비록 중국의 사합원처럼 세대별 위계적인 배치가 아니더라도 같은 채 안에서도 위계적인 배치와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안대청에 면한 안방과 건넌방의 창호를 보더라도 안방의 경우는 들어열개문으로 만들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하였고, 건넌방의 경우는 홑벽에 작은 여닫이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는 장식적 측면이 아니라 며느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위한 배려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려는 안대청 외에도 작은 대청이나 뒷마루를 만들어 며느리의 쉼 공간을 마련해주시기도 하였다. 윤중고택의 경우에도 안대청에서 건넌방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한번의 완충공간을 거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며느리전용 내밀한 외부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된 시집살이로 힘든 며느리에게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한 작은 배려라 할수 있다. 또한 부부동침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며느리가 기거하는 건넌방에 퇴를 붙이고 문을 달아서 젊은 주인의 출입에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윤중고택에서도 사랑채에서 들어오는 작은 쪽문과 건넌방의 퇴와 문을 볼수 있다.

2. 중국의 가족관계에 따른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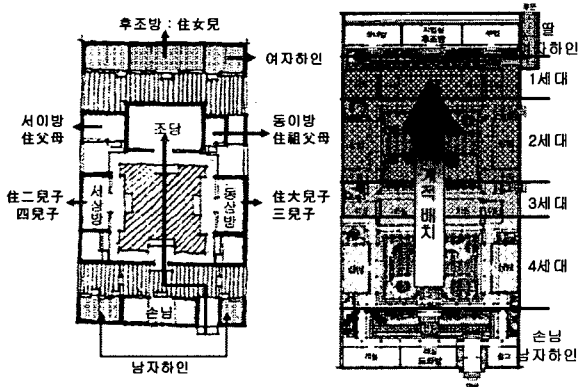
확대가족인 중국의 부부관계는 여자가 훨씬 대등한 관계에 있다. 확대가족은 다수의 부부가 동거하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은 남자집단에 부인은 여성 집단에 충실하고 남자와 여자는 대가족의 가사를 분담(分擔)하기에 각각의 부부가 독립된 가사 영역을 가진다. 중국의 가정은 가족원을 통솔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고 주부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둔다. 중국의 부인은 한국과 일본의 부인들과 같이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하는 여성상이 아니라 재산권을 주장하며, 가장권과 대등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가정에 종속성이 약하다. 따라서 중국의 가장과 주부역할관계는 상호 견제적이다. 가장과 주부의 역할 분담도 자율적이고 자동적이다.

중국에서는 부모생전에 형제들이 가산을 분할하여 상속받는 형제균등분할상속제도로 큰아들이 집안을 물려받지만, 재산권이 나 재사권을 형제들이 분할하여 상속하고 집안의 일처리에 있어서도 가장의 독단이 아닌 가족과의 의논을 통하여 처리한다. 중국의 가정은 가내성인남녀를 대표하는 대표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정은 자신의 형제나 아들을 견제세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장자와 차삼남 모두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장유유서의 논리가 있지만 형제는 가부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義務)면에서 대등한 입장에 있다. 형제의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생활조건, 권리, 의무에서도 균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가족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며느리는 세 시기를 거치면서 혼인한 시가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중국의 가족은 한국과 같이 외며느리가 아니라 여러 며느리가 같이 살고

시아머니는 여러 며느리를 지위 감독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사전에 고부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며느리제도를 수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확대가족을 지향하는 중국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와 동거하면서 삼대, 사대의 가족이 모두 한집에 기거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아버지, 아들, 손자 3대의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채의 건물이 중정을 가운데에 두고 자리 잡고 각 채에는 부부중심의 부분가족들이 기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족생활의 비밀 혹은 프라이버시유지와 대가족생활의 영위에 편리함이며, 부부간에 강한 위계공간이라기 보는 평등적 관계라 할수 있다. 한국처럼 가장과 주부의 역할구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대별 공간이 분리되어 각 세대별 부부의 사생활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배치가 특징이다. 이는 남녀보다는 세대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나이많은 여인은 젊은 세대의 남성들을 다스릴수 있었다(노버트 쉐나우어, 2004).



<그림 9> 가족관계에 따른 사합원. 배치
출처: 우- 손세관(2001), 김계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좌-王其明 外 1人(1996), 北京四合院, 中國建築工業出版社

또한 유교적 성의식에 의하여 여성의 바깥출입을 제한하였고, 타인이 수화문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조차 제한하였으며²⁰⁾ 미혼인 딸들은 집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후조방에서 기거하였다. 하지만 남녀유별의 원리가 한국처럼 모든여성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미혼자녀에게만 적용되었고, 부부별침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중국의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서 공간사용에 남녀의 차이가 있으나 결혼후에는 부부가 동등하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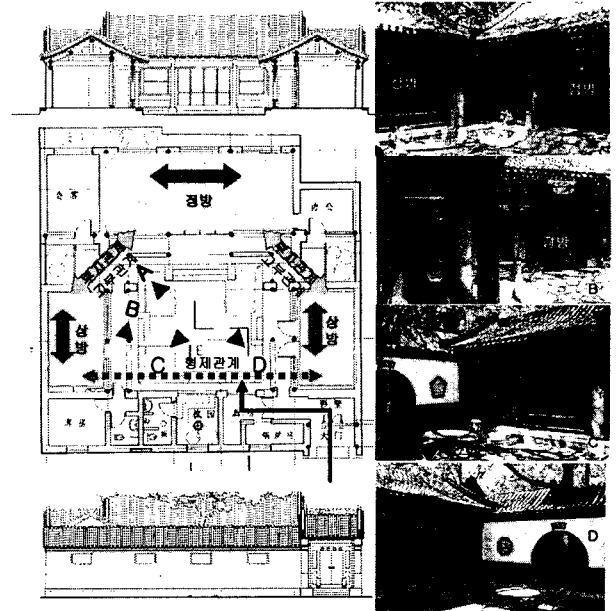
20) 한나라 때부터 누가 손님으로 초청될 수 있는지 손님이 주택의 어느부분까지 들어갈수 있는지 엄격한 예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방인이나 행상은 대문간까지만 허용되었고, 손님은 중정을 통해서 응접실까지 들어올수 있었고, 친척이나 아주친한 친구만이 집안의 사적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다.(집-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 노버트 쉐나이어 지음, 2004, p.232)

이는 중국인의 성에 대한 은폐의식이 남편과 아내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제외한 남자와 여성의 관계에서 엄격히 지켜졌던 것으로 볼수 있다.

사합원의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기거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의 질서를 공간에 적용하여 가족내 위계에 따라 순위적으로 공간을 부여해 나가고 있다.

가장의 거처인 정방은 주택의 안쪽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아들들은 서열에 따라 좌우의 상방에 기거한다. 중앙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공간이 우측에 있는 공간보다 우위에 있어 좌측의 상방에 장자가 우측의 상방에는 차남 등이 기거한다. 이는 장유유서에 입각한 배치적 특성이다. 또한 중정에 면한 각 동들은 세대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벽은 차단적 벽돌로 마감하고 있어, 부자간의 질서와 세대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장자를 제외하곤 모두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균분주의에 입각하여 형제가 모두 동일한 상방에서 기거하고 있다. 상방의 크기나 장식은 거의 비슷하나 단지 장유에 의한 위치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합원에서는 가장이 거처하는 정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문간, 영벽앞 전이공간, 전정, 수화문, 중정을 거쳐야 한다. 겹겹이 경계구조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방은 개방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사랑방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사랑방은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위계적 표현을 모두 수용하는 공간이었으나 사합원에서 정방은 집안에서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가족 내 가장으로서의 위계성을 더 중요시하는 공간이다.



<그림 10>가족관계에 따른 사합원(在四八秀其吳四合院) 도면 및 사진 출처: 馬炳堅(1999), 北京四合院建築, 天津大學出版社.

사합원의 고부관계는 각 세대별 영역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부자관계와 같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의 독립된 생활영역

안에서 생활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다. 중국가족에서는 여자를 위하고 주부를 존경하지만 한국처럼 권위공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이 고부관계는 살림권과 안방이라는 최고권위장소를 가지고 경쟁관계에 있으나, 중국은 시어머니의 공간과 며느리의 공간상 특별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장유유서에 따른 위치상의 위계가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며느리간의 경쟁이 더 크다. 또한 각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거주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차단적이고 물리적인 구조물로 갈등소재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앙의 정원(내원)이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세대별 사생활이 명확하게 확보된다.

이처럼 사합원은 가족간, 각 세대별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편리한 배치적 특성으로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가족관계와 공간구성

직계가족에서는 부인이 남편에 종속하는 도가 확대가족의 부부관계보다 더 강하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장적 수직구조에서는 종속성이 더 강하다. 이는 부부관계가 부자관계에 준하여 여자가 아들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족은 모든 권력이 가장 1인에게 독점되어 가족구성원은 가장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적인 관계로 부부관계에서도 주종관계를 이룬다. 무사계급에서는 가장이 아내를 죽일 권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처럼 유교적인 남녀유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봉건사회의 가장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다른 가족의 절대적 복종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직계가족의 틀은 가지고 있으나 후계자 선정시 한국과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처럼 큰아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정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어 비혈연관계의 사람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부자관계는 혈연의 원리가 약한 비혈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와 자는 권리와 의무로만 연결되었다. 즉 부자는 비혈연적 관계로 인하여 부권이 약하고 가장권만이 강조되어, 후계자는父에 대한 책임감은 약해지고, 家권을 계승시킬 의무감만 강하게 남아있다. 즉 양자로 결부된 비혈연 부자관계일 경우에는 오히려 혈연관계의 부자관계보다도 강한 보은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동류의식마저 성립되어 가장의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의 가장권은 세대원리를 무시할 정도로 강하다. 일본의 부자관계는 군신관계와 같은 주종관계로 孝가 아닌 忠이 강조되어 사회조직에서의 위계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형제관계는 한국보다 그 차이가 심하다. 가장이 지목한 후계자는 후계자가 아닌 동생과의 사이에 父와 子의 차이만큼이나 언어, 행동 일상생활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속제도에 있어서도 후계자 단독상속으로 한국의 장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즉 후계자는 가장과 유사하거나 가장에 다음

가는 대우를 받는다. 그리하여 弟는 兄에게 전일적 복종을 강요당하는 상하관계가 성립되며, 결혼후 형제가 본가, 분가의 관계로 결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제는 남과 같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일본의 주거공간에서는 형제간에 관한 공간구성을 볼 수 없다.

나라마다 고부관계를 극복하려는 장치가 있다. 일본은 사촌혼과 같이 근친혼으로 고부문제를 극소화하고 은거제도로 고부문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며느리는 외며느리로 작은 동서를 두는 한국의 만며느리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학자들은 은거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고부간에 긴장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은거한 시어머니는 주부에 의존하거나 별거은거와 은거분가하기 때문에 가계계승 후에는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가 권한이 더 크므로 한국처럼 고부간의 갈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가족관계는 가장에 의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 가장을 정점으로 하여 후계자인 장남이 있고, 다음이 아들들이며, 다음이 어머니이고 다음이 여아인 것이다. 남자와 연장자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후계자인 아들에게는 존대어를 사용하였다.

무가에서 가장의 지위와 위계표현은 접객공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접객공간에는 현관²¹⁾, 불단, 쓰기노마(次の間)²²⁾, 자시키(座敷)²³⁾ 등이 있는데, 현관은 정식출입구로서 가족마저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용하여 객실과 함께 무가의 상징이 되어 소규모의 아시키루층의 주거에서도 式台형식의 현관만은 꼭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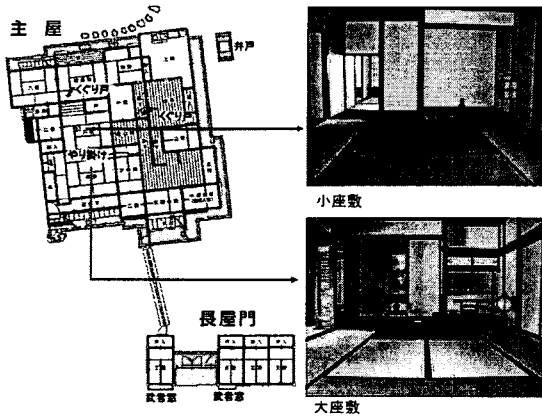
가장의 거처인 자시키(座敷)는 접객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주택의 전면에 위치한다. 자시키의 위치는 가장안쪽에 위치한 방을 정실로 사용하였고, 도쿄노마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접객의식은 에도시대에 더욱 확대되어 노우(能)와 차(茶)가 향유법식으로 고정되어 노우부다이(能舞臺)를 가진 대서원과 차실을 가진 소서원으로 확장되었다.(김왕직, 이상해, 2002) 자시키의 상단은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각자의 서열에 따라 상단에서 떨어져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자신의 윗사람이나 비슷한 계급의 사람을 만나는 장소와(黑書院) 아랫사람을 만나는 장소(白書院)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신분서열에 따라 접객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한계선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접객공간은 오래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가족의 일상생활로 사용되

21) 玄關의 관은 관문(關門)과 동일한 의미로, 안과 밖을 엄격히 분리한 의식을 나타낸다. 현은 선(禪)의 경지인 '현묘(玄妙)'의 약어이다. 따라서 현관이란 '현묘로 들어가는 관문'을 뜻한다.

22) 자시키 옆에 붙은 방으로 현관에서 쓰기노마를 거쳐 자시키로 이동한다.

23) 남자인의 일상적인 거처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공간이다. 중세이후에는 다다미를 깔 방을 의미하며 자시키 장식으로는 도쿄(床)·다나(棚)·쇼인(書院)·조우다이가마에(帳台構)등이 갖추어진 방을 객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객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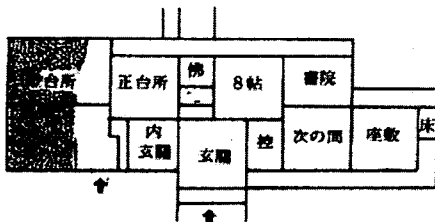
는 일은 없었다(太田博太郎, 1994). <그림 11>의 大川筋武家は 별도의 대서원과 소서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면과 향유를 위한 大座敷과 차를 마시는 小座敷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듯 일본주택에 있어 접객 및 접객공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고 이러한 접객본위의 공간사용은 일본무가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11> 무가(大川筋武家)의 座敷

출처: www.city.kochi.kochi.jp/deeps/15/1503/ohkawas

일상적인 가족생활공간으로는 가족과 여성의 공간인 이마(居間)²⁴, 차노마(茶の間:다실), 다이도코로(台所)²⁵, 난도(納戸) 등이 있다.



<그림 12> 중·하급무사의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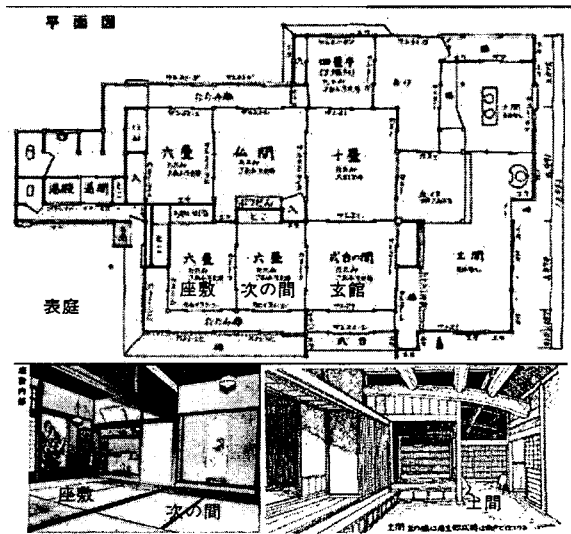
출처: 『日本の室内の空間』, 東京:主婦と生活社, p.34
박선희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12>의 중·하급무사의 주택을 살펴보면 자시키(座敷), 書院, 쓰기노마(次の間), 현관등이 중심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관에서부터 접객공간인 자시키까지 모두 가장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서원은 가장의 서재 겸 침실공간이며, 쓰기노마는 객이 데리고 온 가신들을 위한 곳이며 자시키의 격식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한 주종간의 복중성, 신뢰성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가족을 위한 공간은 특별한 명칭이 없다. 서원옆의 8첩 공간이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무가에서는 가장의 공간과 접객공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 24) 가족 단란의 장소로 보여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여가를 즐기는 방으로 겨울에 이오리 주변에 모여 잠을 자기도 한다.
- 25) 음식준비를 하는 부엌공간

가족원을 위한 공간은 없다. 가족관계 모두 가장에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공간구성 또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박선희, 1992).

이렇듯 일본은 주공간의 절반이상이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가장을 중심으로 한 공적인 접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공간이라 해도 가족원의 개인적 공간이나 주부의 개인 공간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여성공간은 남성공간에 귀속되어 여성들의 거처공간인 오카미가다(御上方)는 가장의 생활공간 뒤편에 위치하여 남성의 출입을 제안하였다. 주부를 칭하는 공간이 없는 것처럼 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칭하는 명칭도 없다. 부자관계도 군신관계와 같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가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인공간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고부관계에 의한 주거공간의 특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고부가 한 동에 함께 동거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관계는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일본의 주택은 가장의 공간을 제외하고서는 개실이 없으며, 가족공동의 사용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에 종속되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무가(森田家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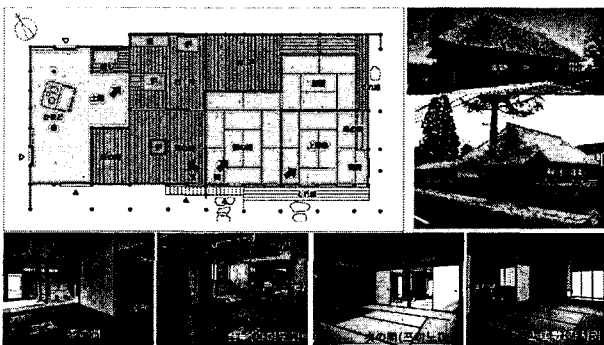
http://bunkazai.ysn21.jp/general/summary/frame.asp?mid=20024

<그림 13> 森田家住宅의 경우에도 평면의 실 용어를 보면 다다미의 장수로 6첩, 10첩, 4첩반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실의 배치와 도쿄노마의 위치로 보아 하부의 6첩방은 자시키, 쓰기노마, 현관임을 알 수 있으나 상부의 공간은 누가 사용한 공간인지 알 수 없다. 보통은 4첩반의 방은 사실이며, 6첩방은 가족의 방이며, 10첩방은 마루방을 겸비한 객실로 공간의 크기와 방의 사용목적, 격식이 정해져 있다. 이 주택은 다른 주택에 없는 仏間라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종교적 공간으로 불단이 설치된 방을 의미한다. 즉 일본의 주거는 평면적인 실 용어만으로는 누구의 공간인지 어떠한 용도를 지닌 공간인지 불분명한 것이 특

정으로 오직 손님만을 위한 공간과 종교적 공간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일상생활공간은 가족원들이 방에서 방을 이동함으로써 생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을 위한 객실의 명칭이 별도로 되어있지 않다.

공간의 장식적 측면에서도 자시키는 화려한 도코노마가 설치되어 있다. 초대된 손님의 좌석은 도코노마가 위치한 쪽이 가장 상석으로 여겨 손님의 좌석배치가 정해진다. 이 도코노마는 일상적인 가족생활과는 무관하여 객실이나 주인공간이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여성 생활공간인 안(奥, 裏)으로서의 대표적인 난도(納戸)는 대개 창문이 없고 벽으로만 둘러싸여 출입문 하나만 있는 아주 폐쇄적인 공간으로 가재나 곡물의 수납, 취침이 주된 기능을 가지며 실내에 장식적 배려가 없는 공간이다. 이 난도는 '자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또한 이공간은 일본인의 생과 사의 장소로, 혼인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일상적인 장소보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박선희: 1994).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안방과 비슷하나 일본의 난도는 가족모두 난도에서 취침을 하여 가족개인의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주부의 권위적인 성격이 부가되지 않는 가족공동의 공간이다.

<그림 14>의 旧沼田家武家 경우도 가장의 공간인 자스키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다다미에 도코노마가 장식적인 요소로 꾸며지고 집안의 일상생활과 가족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 다실), 다이도코로(台所), 난도(納戸)의 경우에는 마루판마감에 장식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도록 허술하게 처리하여 일상생활공간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배치하여 한 채안에서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두 부분으로 공간을 양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14> 무가(旧沼田家武家)의 접객과 일상생활공간
<http://www.city.ichinoseki.iwate.jp/history/numata/numata.html>

이처럼 삼국중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지위적 위계체계가 주거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반 중하급 무가주택에서도 여성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일본의 성의식은 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개방적이며, 은폐적이지 않는다. 실내공간도 고정된 벽으로 구획되거나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실내와 실내가 하나로 연결된 융통적인 공간으로 부부간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가족모두 한방에서

기거하여 가족간의 성의식은 폐쇄적이지 않지만, 남녀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이처럼 일본은 무가에서는 크기나 위치, 장식적 측면 모두에서 가장중심의 주거공간임을 알수 있으며, 가족공간과 완벽하게 분리시킨 접객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국처럼 남녀의 분리나 중국처럼 세대별 분리가 아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사회 구조속에 있는 한·중·일 삼국의 가족관계가 전통주거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였다. 한·중·일 전통주거 중 반가, 사합원, 무가를 사례로 삼아 가족관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중·일 가족관계와 공간구성 비교표

가족관계		공간구성특징
한 국	夫婦 독립적 주종관계 부부상호보완적 주부권 권위 大	역할구조의 차이로 남녀 생활공간분리(남녀유별/부부별침) 생활권 위주의 안채는 주부의 상징적 건물
	父子 제사권을 중시한 장자우대상속	공간의 크기, 장식, 위치로 위계표현 별도의 사당 설치
	夫婦 갈등 심화	방의 크기나 장식으로 위계표현 안대청이 갈등완화작용
	兄弟 상하관계(서열)	장남을 제외하고 분가하여 생활
중 국	夫婦 대등관계 부부상호견제적 주부권 권위 無	가장과 주부의 역할구조에 따라 공간구 분이 명확치 않음 남녀유별하나 동등한 권력으로 부부중 심의 평등적 공간구성 주부권을 상징하는 권위적 공간은 없음
	父子 가산권을 중시한 형제균등상속	각 세대별 동분리로 부자간 독립적 생활 장유유서별 위계적 동 배치
	夫婦 근친혼, 민머느 리제등 갈등완화	각 세대별 독립적 배치로 부부별 사 생활 보호 및 고부갈등 완화
	兄弟 위계적 균등관계	각공간은 균등하나 위계적인 배치
일 본	夫婦 가장 지배적 주종관계	가장과 주부의 역할구조에 따라 공간 구분 여성공간은 남성공간에 귀속
	父子 후계자 단독상속 가장 지배적	가장의 일상생활공간과 접객공간 위주
	夫婦 금친혼, 은거제 도로 갈등약화	가족원이 모구 사용하는 일상생활공 간에서 같이 생활
	兄弟 지배적복종관계	후계자외에는 분가(소작농)하여 생활

한·중·일 삼국의 사회구조에 따른 유사점을 살펴보면, 삼국 모두 가족중심적인 사고로 외부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인 가족구조를 가졌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공간을 폐쇄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여성의 공간은 남성공간 안쪽이나 후미진곳에 배치하였다. 부부관계에서도 여성은 남성에게 주종관계에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강도의 차이에 따라 공간사용에 차이점이 나타

나고 있다.

가족관계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부자관계와 형제관계에서 나타난다. 삼국은 가부장권의 차별화된 상속제도로 인하여 주거 공간에서도 명확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고부관계는 비혈연적이고 주부권을 가진 경쟁관계란 점에서 유사하나 주부권에 관한 권위는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

삼국의 가족관계에 따른 공간구성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부부의 역할구조에 따라서 명확히 공간구성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다. 또한 가족간의 위계적 질서에 따라 공간을 배분하고 명확한 위치나 서열이 공간의 사용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대가족제도를 원칙으로 모든 가족들이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살수 있도록 세대별 공간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배치하였다. 가족관계중 형제관계를 중시하여 모든 형제가 균등하게 분배되 가족의 서열에 따라 공간의 위계가 달라진다. 즉 세대별 위계질서에 맞도록 공간을 배분하고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장의 절대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공간구성이 특징이다. 실내공간에서도 하나로 연결되는 개방적 구조로 인하여 가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가족관계성을 무시한 공간구성이라 할수 있다. 즉 일본은 공과 사의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가장을 위한 사회적 공간위주의 계획이 이루어 졌다.

이를 요약하면 반가는 남녀의 분리원칙을 사합원은 세대별 분리원칙을 무가는 공과사의 분리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있으며, 반가는 공과 사 즉 가족생활공간과 사회생활공간 모두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반면, 사합원은 사적공간위주로 무가는 공적공간 위주로 계획하고 있다.

- 접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4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6월 07일

【참 고 문 헌】

- 강인호·한필원(2000).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 권영결(2001). 한·중·일 전통공간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연(1989). 조선조의 주거풍속. **대한건축학회지** 33(2), 36-39.
- 김광석·박명침(1997). 한중일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비교. 부산발전 연구소.
- 김광석(1997). 한·중·일 문화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아시아 연구**, 5, 215-236.
- 김미경(2002).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민속원.
- 김미나(2003). 한·중·일의 경계의식에 따른 주거공간의 경계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
- 김미나(2003). 근세 한·중·일 상류주거의 경계의식에 의한 공간구성비교.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운(1994). 한국문화와 일본문화. **철학과 현실**, 21, 84-99.
- 김홍석(1997). 한·중·일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아시아 연구**, 5, 215-236.
- 김홍석(2001). 한·중·일 민가 계획론에 대한 비교 연구. **동아시아 주거문화 국제 심포지움**, 17-35.
- 문옥표(2001).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백산서당.
- 박부진(1997). 거주공간의 이용관행과 가족관계.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집문당, 133-161.
- 박부진(1998). 가족의 위계구조와 공간이용. **가족과 문화**, 10(2), 17-40.
- 박선희(1994). 전통적 주거에서의 공간사용과 구성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1). **건축역사학회**, 3(2), 111-123.
- 박선희·윤복자(1992). 전통적 주거에서의 접객생활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 **동방학지**, 7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3-280.
- 박전영 외 (2000). **일본의 문화와 예술**. 한누리미디어.
- 박정의 편저(2001). **일본의 생활과 문화**. J&C.
- 박영순의 7인(1998). **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 손세관(1998). 중국 전통주택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15, 113-126.
- 손세관(2001).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 손세관(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 신영훈(2000). **한옥의 조형의식**. 대원사.
- 오옥재외 3인(2003). 국내 특급호텔 한중일 식음공간디자인의 문화적 특성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5), 82-86.
- 윤장섭(1999).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장섭(2000). **일본이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1983). 한국 가족제도. **한국문화인류학**, 15, 11-24.
- 이광규(1971). 한국의 사회구조와 문화유형. **한국문화인류학**, 4, 5-14.
- 이광규(1987). **문화와 의식구조**. 전통문화.
- 이광규(1994).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17, 5-11.
- 이광규(1993). 직계와 견제의 가족제도. **철학과 현실**, 19, 33-41.
- 이광규(1985). 중국친족제도연구서설. **한국문화인류학**, 11, 247-264.
- 이경희(1993). 여성이 경험하는 주거환경에 관한 이해. **가정문화논집**, 7, 21-31.
- 이왕직·이상해(2002). 일본주택화실의 형성과정과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133-140.
- 이원식(2003). **생활행위별 한·중·일 전통주거의 공간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문화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식·이연숙(2002). 가족제도관점에서 본 한중일 전통주거공간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

- 485-488.
- 이진원(2004). 일본의 가부장적 질서와 통치구조.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비교**. 이학사.
- 임덕경(1991). 한·중·일 삼국의 지리와 생활문화의 비교. **정신문화연구**, 14(1), 57-73.
- 중국건축사편집위원회(1990). **중국건축개설**. 태림문화사.
- 조혜정(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집문당, 9-71.
- 최재석(1964). 한·중·일 동양 삼국의 동족비교. **한국사회학**, 1(1), 88-99.
- 최재석(1965). 한·중·일 삼국가족의 통계적 비교. **아세아연구 통권**, 18, 457-46.
- 최재석(1964).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연구 통권**, 14, 19-40.
- 한필원(1997). 중국북경사합원의 공간구성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1), 193-202.
- 노버트 웨나이어 著, 김연홍 譯(2004). **집-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 다우.
- 西和夫 著, 이무희·진경돈 譯(1983). **일본건축사**. 세진사.
- 太田博太郎 著, 박언곤 譯(1994). **일본 건축사**. 발언.
- 이윤화 著, 이상해 外 譯(2000).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 Andrew Boyd 著, 이왕기 譯(1987). **중국의 건축과 도시**. 기문당.
- 형기민(荊其敏) 著, 한동수 譯(994). **중국전통민가**. 발언.
- 유돈정 著, 한동수 外 譯(1995).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 스즈키 시게부미 著, 이현희 譯, (1999). **현대일본주거읽기**. 도서출판국제.
- 王其明 外 1人(1996). **北京四合院**,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馬炳堅(1993). **北京四合院**, 北京美朮攝影出版社.
- 馬炳堅(1999). **北京四合院建築**, 天津大學出版社.
- 王其鈞(2002). **老房子-北京四合院**, 江蘇美術出版社.
- 藤田勝也(2002), **日本建築史**, 昭和堂.
- Edward S. Morse(1984). *Japanese homes and their surroundings*, C. E. Tuttle Co.
- Hsu, Francis L. K.(1971). *Kinship and culture*, Chicago, Aldine Publ.
- Kishida, Hideto(1940). *Japanese architecture*, Board of Tourist In.
- Duncan, James S. eds.(1982). *Housing and identity*.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
- <http://inthewind.cool.ne.jp/minka.htm#minka>.
- http://hagi.jp/~y-kaji/cultural_assets/index.html.
- <http://www.hyakumangoku.net/guide/s-nagamachi/nomura.htm>.
- <http://www.enasan-net.ne.jp/rekishi/nakasendo/02/p12-16.html>.
- <http://www.mu-cci.or.jp/kanko/buke.html>.
- <http://www5.big.or.jp/~ejiri/nakasen/exp/vk06/16goryoc.htm>.
- <http://www.kayabukiyane.com/list.html>.
- <http://members.at.infoseek.co.jp/Yosidon/hagi4.htm>.
- <http://www.inet-shibata.or.jp/~oa/kdata1.htm>.
- <http://bunkazai.ysn21.jp/tushi/bunkahonbun.htm>.
- www.culture-arts.go.kr.
- <http://www.history.co.kr/Academy>.